배움은 바른 실천(행)을 통해 완성된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부처님 당시 정법시대에는 수행을 통해 대아라한과를 증득한 이가 수천에 달했는데, 지금 불기 2565년 말법시대라고 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가 아예 전무한 상태고 다만 유튜브나 절집에서 노보살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스님이 신통방통하다는 뜬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또 이벤트 행사로 방송용 텐트수행을 통해 지팡이 짚은 수염도사를 만들지 않나, 고작 한다는 게 이런 것뿐이니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불, 간경, 좌선, 참선, 이뭣고 등등을 통해 득한 게 있으면 입은 다물고 4부 대중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얼마 전 방송에서 어느 재가불자가 우리 불교는 정체성을 잃은 지가 오래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몇 해 전 어느 선원장이 유학 후 지리산에 선원을 틀고 선원장 모임에서 한 얘기를 기억한다. 우리가 안거하는 방식을 바꾸어 30일을 좌선, 참선을 하고 나머지 기일을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자고 하니 거기 모였던 이들이 참 좋은 얘기라고 말은 했으나, 시간이 흘러 그 말을 했던 선원장이 괜히 무안해 지더라는 것이다. 소록도에서 자비봉사를 실천했다면 아마 그곳이 불국정토가 되었을 것이고, 이때야 말로 전설의 꽃인 우담바라가 피지 않았겠나. 아울러 전 세계 방송매체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 오로지 기복과 유혹적인 말과 글뿐이다. 제발 바르게 실천하자. 배움은 바른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안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는 성직자들의 성불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불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행자로써 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법 은사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불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일 뿐이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누각(砂上樓閣)" 에 불가한 것이고 성불(깨달음)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공양이나 보시를 하고자 할 때는 여래 십호에서 보듯이 꼭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에게 해야 그 공덕이 바른 인연 공덕이 된다고 하셨다. 명심하고 새길 일이다.

◉ 사례1 : 코로나 19

2020년 12월 12일 늦은 시간에 20여년 지기 서울보살님이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차분히 얘기를 하라고 진정시킨 다음 얘기를 하게 했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관리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12월 3일 ~ 12월 9일 사이에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거나 관리소장을 대면한 사람은 빨리 신고하고 검사받으라고 한다. 그럼 보살님은 사무소를 방문했느냐? 하니 방문뿐 아니라 소장과 같이 대면해서 차도 마시고 긴 대화도 했고, 그리고 소장이 직접 보살자택(34평)을 방문해서 일체의 조명등을 교체해 주고 차와 과일까지 대접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기간에 노령 환우 돌보는 일로 3가구 방문했으며 또 출가한 딸들 집을 각각 방문해서 손주, 손녀들을 돌보고 왔다 한다. 그래서 빨리 사실대로 신고하고 지금부터 기존에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유선으로 새로운 기도문을 알려주고는 당분간이 아니고 매일 2번씩 평생 하라고 했다. 병약한 환우 가족들과 어린외손자, 손녀를 안고 어루만지며 놀았으니 그 불안한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빨리 연락 하라며 끊었다. 12월14일 오전에 전화가 왔다. "스님 감사하고 고맙다"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며 또 우는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님.

◉ 사례2 : 희귀병

2020년 12월28일 어둠이 깔릴 무렵 긴급전화가 법사님으로부터 왔다. "스님. 제가 119에 실려서 마산 000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길래 지금부터 들숨, 날숨에 000을 염송하고 도착과 동시에 연락하라 하고 끊었다. 당시 상황이 긴박했기에 염송을 하라는 의미로 빨리 끊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다시 어디냐고 물으니 무조건 "스님 고맙습니다"만 연발하며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법사님은 일찍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오랫동안 불교 청년회에 몸담아 지금까지 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4년 전에 중간관리자로서 명예퇴직과 동시에 직장을 옮기게 된 곳이 창원이다. 그래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있던 차였다. 일요일은 여지없이 연등사에서 꼭 법회를 보고 있다. 이 법사님은 5년 전 연등사와 인연이 될 때 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12월 30일 오전에 또 긴급한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 법사였다. 또 119에 본인이 스스로 호출해서 실려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일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당에서 나름 기도를 하고 전화가 왔길래 퇴원과 동시에 절에 와서 기도 받으라 했다. 그래서 2021년 1월1일 ~ 1월2일 이틀간 기도받고 지금까지 아무 고통 없이 생활 잘하고 있다. 알고 보니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법 오래된 병이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금년 구정 전날 전 가족이 다 같이 절에 와서 스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다. 사실 법사 가족들은 전부 천주교인이다. 그 전에 가족들에게 법사가 연등사 스님얘기, 조현병, 말기암,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등을 기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장면을 많이 보고(스님은 신도님들과 더불어 보는 데서 기도함) 실제로 사례자들이 오고 있고 해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말을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 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 병원이 해결 못하는 것을 두 번의 기도로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가끔 오겠다고 했고 딸은 대학졸업 반이었는데 정기적으로 스님을 뵈러 오겠다고 하며 지금은 틈나는 대로 야채빵을 만들어서 스님 드시라고 아빠 편에 보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잊을 만하면 규모가 있는 큰 절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많이도 받았다. 그때 마다 꼭 스님과 신도 일부가 같이 동행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소납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가겠다고 했다.

첫째 : 신도회(관음, 지장, 반야, 보리, 정진, 육법공양 등등,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일체 만들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있는 것도 없애겠다.

둘째 : 일체 절간을 넓히거나 짓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도재양성을 위주로 교육 불사에 매진하겠다.

셋째 : 각 전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대웅전과 요사채를 제외하고 전부 전답을 만들어 자작을 원칙으로 하겠다.

넷째 : 일체의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 행위를 하지 않겠다.

예로, 사주, 점, 기도(재수, 운, 대학입시, 사업성취, 띠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등)와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큰등, 작은등 현재 있는 것은 철거 시키겠다.

다섯째 : 아나바다를 실천하겠다, 소납은 출가 후 부처님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 소납은 가구를 비롯하여 모든 생활도구를 전량 주워 쓰고 있다.

또, 이웃돕기를 하되 내 양말은 내손으로 기워 신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그것을 소납이 직접 몇 켤레를 기워 신었는지 확인하고 기운 숫자만큼 새 양말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신도님 시켜서 관공서, 학교 등이 아닌 어려운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금전적인 보시를 하고자 할 때도 역시 관공서, 학교 등이 아니고 저 달동네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 동네 사는 이가 잘 안다. 그럼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백지 봉투 속에 넣어 밀봉을 하고 그 집 담 너머로 아무도 모르게 던져주고 오라는 것이다. 절대 헛기침소리도 내지 말고 왜냐면 모든 성인의 바른 가르침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온통 소문내서 방송이나, 말로, 글로,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띠삼재풀이, 기도, 부적, 고기방생, 성지순례 등 일체의 요행이나 잡귀를 하지 않을시 우선은 기존 신도들이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떨어져 나갈 것인데 감수할 수 있겠냐고. 예를 들면 추수철에 타작을 하면 곡식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겠다고 하였으며 제의하는 곳마다 한 달 기한을 주었다.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연락이 온 곳이 없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466-9991 (김00)
- 010-4807-6932 (박00)
- 010-5699-3173 (박00)
- 011-9143-0098 (김00)
- 010-8291-9423 (변00)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